2023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3.1.31.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6/10	5	2	13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최병욱 위원, 이희중 위원, 임재근 위원, 손기배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2	-	2	11	-	11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1	-	-	11

*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전월(12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보도	<서구청 체육회 선거 보도> 서구청장의 서구체육회 선거 개인 보도에 대한 보도지침을 기자들에게 보낸 건 심각한 문제인데 KBS와 일부 지역언론은 나갔는데 대전MBC는 보도가 없어 아쉬웠음	뉴스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체육회 선거 개입 보도는 짧게 처리 했는데 대변인실 보도 지침 문제는 진행중인 사안으로 추후 주목해서 추적 보도할 예정 **<23. 1월 조치>**	'22.12월
보도	<보도 영상> 대전시 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을 의결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정지화면을 사용함, 영상을 활용한 좀 더 생동감 있는 화면 구성이 필요	스트레이트 기사 영상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 영상과 함께 기사가 이해되는 그래픽 처리 등 포맷의 변화를 통한 전달 방식 개선하겠음 **<23. 1월 조치>**	'22.12월
보도	<우주항공청 보도> 항공우주연구원 이슈가 뜨거운데 해당 뉴스를 보도에서 찾아볼 수 없음.	우주항공 관련 보도는 공약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담고 있어서 지역이슈, 과학기술도시,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계속 팔로우 하고 있음 **<23. 1월 조치>**	'22.12월

보도	<대덕연구개발특구 보도> 대덕특구단지 과학관련 뉴스도 좀 더 많이 다루어 주었으면 함	내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에 맞춰 과학 대중화 관련 보도, 과학기술 개발이 정책적 걸림돌 등 관련기사들을 많이 취재할 예정 **<23. 1월 조치>**	'22.12월
교양	<오늘M> 이추남 코너는 다양한 이슈를 취재하면서 시사프로그램 성격을 가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역 이슈를 꾸준히 담아주었으면 함	오늘M에서 지역성을 많이 살리지 못한 것 같음. 이추남을 이용해 내년부터 로컬리티를 살리고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음 **<23. 1월 조치>**	'22.12월
교양	<쇼 윤봉길> 주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적절한지 의문이었고 내용면에서도 프로그램이 아닌 예산군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보임. 일회성 프로그램인지 계속하는 건지도 궁금함.	충남문화재단과 예산군의 요청으로 제작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결과물을 봤을 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드러났다는 내부적인 평가 있었고 일회성 이벤트로 기획된 프로그램임 **<23. 1월 조치>**	'22.12월
교양	<다큐멘터리와 일반 콘텐츠 격차> 예산과 인력의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와 일반 콘텐츠 사이에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	다큐멘터리와 기획제작물 같이 PD의 기획과 구성이 필요한 콘텐츠의 경우에도 제작PD들의 내부 연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23. 1월 조치>**	'22.12월
교양	<격렬비열도>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이슈가 많은데 격렬비열도를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오염된 바다 장면이 인상 깊었음. 내년에도 UHD화질 다큐 제작해 주길 바람	격렬비열도는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생태적으로 보존된 종이나 동식물 관련해서 의미있는 작업들이 이어질 전망. 지속적으로 아이템 개발하겠음. **<23. 1월 조치>**	'22.12월
기타	<ID 제작> KBS 아이디를 보면서 밀양, 부안 등 전국에 위치한 유적지를 드론으로 예쁘게 찍어서 10초정도 보여주는데 가보고 싶었음. 대전MBC도 지자체와 협력해 아름다운 경치를 ID로 제작하면 어떤지	현재 신년 아이디를 제작하고 있지만 올해 한빛탑, 공산성, 대청댐 등 방송을 했음. 내년에 지자체별로 명소들을 더 발굴해서 반영하겠음. **<23. 1월 조치>**	'22.12월
기타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관련> 소통 차원에서 시청자 의견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었으면 함. 무답변도 있던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함. 배너 제목도 시청자 불만처리가 아닌 시청자 의견처리로 변경 요망	상품 방송 지연 등은 당당PD에게 내용을 전달해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 하고, 흡수할 수 없는 애매한 의견들은 무답변으로 하고 있는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잘 살펴보겠음 **<23. 1월 조치>**	'22.12월

기타	<홈페이지 인기 클립 코너> 방송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어 시청자와 거리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됨. 화면에 보이는 얼굴도 좋지만 스태프들도 보여주시기를 바람	TV에 나오는 인물들을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의 절차나 과정을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내년에는 스태프들도 출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3. 1월 조치>**	'22.12월
<게시판> 기타	<캠페인 내용 불만> 자녀 교육의 본보기에 대한 라디오 공익광고에서 신사임당의 사례는 적절해 보이지 않음.	라디오 공익광고에 대한 소중한 의견 감사하게 생각하며, 해당부서에 전달해 추후 교육 캠페인 제작시 참고할 예정 **<23. 1월 조치>**	'22.1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3년 1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 · 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최병욱	한밭대학교 총장	대덕연구개발 특구협의회	과학기술단체	남/1961 21.05.01~23.04.30
부위원장	이희중	대전보건대학교 방송컨텐츠과 교수	대전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소외계층대변	남/1964 21.05.01~23.04.30
위원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소장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단체	남/1978 21.05.01~23.04.30
위원	정훈진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남/1967 21.05.01~23.04.30
위원	황혜진	대전공공미술원 대표	대전동구문화원	문화단체	여/1977 21.07.01~23.04.30
위원	류용환	한국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대표	한국소비자모임	소비자단체	남/1960 21.11.01~23.04.30
위원	손기배	굿네이버스 대전세종지부	굿네이버스 충청본부	인권단체	남/1983 22.03.01~23.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여/1966 22.05.01~23.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남/1977 22.05.01~23.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여/1964 22.05.01~23.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　　50년>** 대덕특구 50주년인데 그와 관련해서 기획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특집물들이 있는지 궁금	**회의록 첨부**			
보도	**<난방비 폭등>**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원룸을 취재했는데 원룸보다 난방 환경이 더 열악한 달동네나 최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도 취재하고 대안도 모색해 주길	**회의록 첨부**	○		
보도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해제를 보도하면서 인사와 예산 등 장점만 부각시켰는데 대전에 KAIST가 있으니 심층적으로 더 다뤄주었으면	**회의록 첨부**	○		
보도	**<한파 쉼터>** 한파쉼터가 지역에 600곳이 넘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 운영관리가 잘 안된다는 지적은 좋은 보도였지만 책임있는 지자체의 입장을 듣지 못한 점은 아쉬워	**회의록 첨부**	○		
보도	**<설 명절 전통시장 보도>** 지역화폐 온통대전 캐시백 폐지와 연계한 전통시장 매출 감소 보도로 정책 과제 제시. 하지만 해수부의 수산물 구매시 30% 환급 정책은 보도되지 않아 아쉬워	**회의록 첨부**	○		
보도	**<자치단체 정책 과제>** 새해를 맞아 대전, 세종, 충남의 각 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중간 중간 한번씩 후속보도를 해주길	**회의록 첨부**	○		
보도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등>** 지역 소멸과 지역인재 문제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길	**회의록 첨부**	○		
교양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룬점은 좋았지만 발전소측의 입장까지 엮어서 같이 방송했으면 더 좋았을 것.	**회의록 첨부**	○		
교양	**<지역 인물 다큐>** MBC경남의 <어른 김장하>는 전국 방송되면서 큰 호응 받음. 대전MBC 도 대전, 충남 지역의 인물 다큐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회의록 첨부**	○		
기타	**<대전MBC 소년소녀합창단>** 지역방송사의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 중, 저학년 대상으로 부모들의 호응도 좋을 것 같고 지역성에 부합되는 것 같아서 좋아.. 잘 기획해주길	**회의록 첨부**	○		
기타	**<유튜브 등 SNS 관리>**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를 통해서 재가공 되거나 확산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최근 콘텐츠 배치 검토 필요	**회의록 첨부**	○		

2023년 1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3년 1월 31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최병욱 위원, 이희중 위원, 임재근 위원,
손기배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오늘 회의는 위원님 10분 중에서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됐습니다. 먼저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의견 처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편성불만 1건, 음향수신 관련 1건, 홈페이지 수정 요청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 사항 등 3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대부분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처리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김환균 사장님께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작년에 콘텐츠 측면에서 시청자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 또 저희도 시청자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견들이 저희 콘텐츠의 개선과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올해도 허심탄회하게 질책할 때는 눈치 보지 마시고 매섭게 해 주셔도 됩니다.

올해 저희는 콘텐츠 측면에서 몇 가지 큰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공익캠페인으로 했던 '고마워유 같이 가유'에 이어서 올해는 '힘을 내유 같이 가유'를 기획해서 두 번째 편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쟁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했고요.

주요 기획 중 가장 큰 것은 대덕특구 50주년입니다. 그와 관련한 기획도 준비 중에 있고요. 인력 문제로 지역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저희 자체 평가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지역성을 강화

하는 쪽으로 편성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고견 기다리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이번에는 시청자위원회를 대표해서 최병욱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작년 한 해도 대전MBC가 나름대로 잘 기획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위원들도 박수를 보내드렸고요. 2023년은 코로나가 엔데믹 상황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일상 회복이 되는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희망이 가득한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올 한 해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높아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미 난방비 폭탄 등 어수선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언론이 그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대처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전MBC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2023년 1월 시청자 위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작년에 쟁쟁한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아서 그랬는지 1월에는 눈에 띄는 프로그램들이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연초가 올해를 계획하고 구상하는 시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슈를 추적한 남자'를 눈여겨봤는데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서천 마량리 홍원마을의 눈물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서천 화력발전소가 폐쇄됐다고만 들었는데 새롭게 건설했다는 걸 이번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서천뿐만 아니라 서해안을 따라서 태안까지 전국에 있는 수 많은 화력발전소들 중에서 충남이 보유하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대단히 많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매연과 송전탑 문제가 우리 충남 지역의 당면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당진 지역은 서울로 가는 송전탑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다뤘던 석탄화력 발전소와 관련된 주민들의 목소리는 대전MBC가 보도하기에 적절한 주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추남>이 최근 지역민들의 이런 고충들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은 확장되는 측면에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추남>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집중 취재를 해서 뭔가를 파헤치기 보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

번에도 인터뷰들이 주민들의 목소리가 대부분이고 장동혁 의원의 전화 인터뷰가 포함되긴 했지만 발전소 측의 입장들까지 엮어서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추남> 프로그램의 성격 포지셔닝 필요해서 아직은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전MBC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MBC경남에서 작년 연말과 올해 1월 1일에 방영했던 <어른 김장하>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것이 전국 방송화되면서 SNS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지역방송을 할 때는 1만 건 정도의 유튜브 조회가 나왔지만 전국방송으로 나가면서 1부가 18만, 2부가 9만 5천 정도로 지역방송 콘텐츠 치고는 꽤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대전 충남 지역에 이러한 인물 다큐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전MBC 차원에서 이 다큐에 대한 사회적으로 어떤 피드백들이 있는지 궁금했고요. 마지막으로 대덕지역 50년 맞아 여러 가지 기획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올해 준비하고 있는 특집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좋은 코멘트와 올해 계획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중 위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요즘 난방비 폭등 뉴스를 들었는데 문제는 다음 달 고지서가 더 큰 문제가 될 거다... 1월에 워낙 추위가 심해서 2월에 고지서를 받아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에 소외 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굉장히 많은데 난방비 폭동 문제가 단지 서울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지역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윤웅성 기자가 원룸을 취재한 것을 들었는데 달동네나 최상위 계층이 사는 정동 뒷골목 같은 곳을 가보면 오히려 원룸보다 더 열악해 난방조차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시리즈로 한 번 접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대안은 없나 단순히 지금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이게 코끼리한테 비스켓 하나 던져주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안 모색을 한번 해보는 기사를 발굴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는 또 착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보 제공 측면에서 한 번 정도 안내를 더 해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엊그제 뉴스 중에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어요.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4개의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는 뉴스였는데 그러면서 인사나 예산이 자유로워 질거다 라는 장점

만 뉴스를 살짝 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법인화처럼 장점만 있을까요. 광주, 울산도 있지만 어쨌든 카이스트가 맹주인데 한 번쯤 심층적으로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시각각 같은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뉴스에서 신입 박선진 기자가 출근해서 기사를 발굴하고 취재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영상이 참 신선했어요. 이런 걸 몇 개 더 만들면 하나만 올라와 있는 것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전MBC 소년소녀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음악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년소녀 합창단은 대전MBC가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TJB는 관현악단이 있긴 하지만 관현악단은 볼륨도 크고 KBS교향악단처럼 지역에서 수준 높은 악단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소년소녀 합창단은 지역 어린이 중, 저학년 까지를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공연하면 부모들의 호응도 이끌어낼 수도 있고 대전MBC의 마스코트처럼 브랜드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지역성에도 부합되고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소년소년 합창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손기배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손기배 위원
뉴스 보도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 넷째 주 뉴스데스크에서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 쉼터가 부실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대전 지역 한파 쉼터가 600곳이 넘게 지정되어 있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운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안이한 정책수행을 잘 꼬집었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취재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주민센터 직원의 인터뷰가 있긴 했지만 정책 책임이 있는 대전시 주무부서의 입장을 들어봤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답답함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난방비와 공공요금 인상이 굉장히 큰 이슈라서 국가보조금 말고도 지자체에서 대안이나 대응책을 모색해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대전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취재할 때 활용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 26일 뉴스투데이에서 온통대전이 없는 설 명절에 전통시장의 모습을 취재하셨는데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이 폐지가 되면서 설 명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액이 급감했고 그러면서 재래시장 매출액도 많이 줄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온통대전 사용의 메리트가 전혀 없어

진 거기 때문에 향후 대전시가 더 좋은 정책을 내야만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시는 취지의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는 보도였지만 그 시점에서 궁금했었던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설 명절 기간에 재래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해양수산부에서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명절을 보내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 였습니다. 좋은 정책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서 대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머니 사정을 아끼고 재래시장의 입장에서는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의 홍보가 대전시에서도 하고 공영 방송에서도 같이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 홍보하거나 안내를 해 준 보도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전MBC에서 보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꼼꼼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정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마정미 위원
1월에는 크게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건 아니고 뉴스나 시시각각, 다른 프로그램들도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루틴하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난방비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난방비 인상 기사가 오늘과 엊그제도 보도됐지만 손기배 위원님 말씀하신 1월 27일자 기사는 저도 한파쉼터 존재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충남도의 재해구호기금 문제, 난방비 폭등에 대한 대전시 대책이 전무하다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의적절한 기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바란다면 문제 제기에서 문제 해결책까지도 던져줄 수 있는 기사였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살펴봤어요. 홈페이지는 포맷이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쨌든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튜브 관리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BC 본사도 우리는 지상파 방송사를 넘어서 미디어 그룹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제 지상파 방송사가 프로그램 본방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매체를 통해서 재가공 되거나 확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전MBC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메뉴에 최신 뉴스도 있지만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웃으면 복이 와요>가 초기 메뉴에 있었어요. 물론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는 대전MBC 콘텐츠 중에 지역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춘 가장 훌륭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1998년 작품이라는 거죠. 25년 된 프로그램이에요. <웃으면 복이와요>는 왜 거기에 올라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명작을 다시 볼 수 있는 기쁨은 있는데 최근에도 좋은 작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더 노출될 수 있게 구성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올라오는 건 그 쪽 알고리즘에 근거하지만 적어도 일단 홈페이지에서의 메뉴 구성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스타그램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짧은 영상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긴 영상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숏츠'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과 인스타그램 구성 혹은 콘텐츠 제공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팔로우를 봤는데요. 대전MBC뉴스 팔로우는 950명, MBC 팔로우는 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적이 저조한 데 인력 문제가 있겠지만 있는 인력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요즘 하나의 미디어가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쪽에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 좋은 얘기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동 위원
1월이라서 정부 정책도 많이 바뀌지만 자치단체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대전 세종 충남의 각 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 짚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풀어야 할 숙제까지 정리한 건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중요한 과제로 잡으신 만큼 중간중간 한 번씩 후속 보도로 이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아울렛과 관련한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화재에 관련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까지 이어진 부분은 지역 언론사로서 정말 의미가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사 방호 관련해서 대전, 충남 훈령이 새로 만들어 지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의원일 때 공공기관 내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들을 비교해 가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난방비 문제라든지 새로운 SNS나 플랫폼 얘기는 신선해 보였습니다. 특히 대덕특구가 50주년 되는 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미리 해주셔서 좋았고요.

지역성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구직난보다 구인난이 더 높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부 업종에서는 지역의 인재 양성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국토 균형 발전은 결국에 지역 소멸도 막아야 되고, 대전시는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만 충남권을 살펴보면 지역 소멸을 얘기해야 되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수도권 쪽에 많은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지방이 더욱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전MBC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얘기는 이 정도로 듣고요. 대전MBC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보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특구 50년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정했습니다. 뉴스로 정리할 부분과 프로그램으로 정리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덕 50년 과학 강국 100년'으로 정하고 과학 입국을 이끌어왔던 지난 50년을 되새겨보면서 현재와 미래 과학 입국과 과학 중심주의로 갈 수 있는 대덕의 역할에 대해 주목해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출연연중에서 중심이 되는 범주를 나눠보면 바이오와 우주항공, 특히 작년에 다누리호 때문에 우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들이 아니라 과거 나로호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실패의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과 정보통신 강국으로 6G까지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들도 짚어볼 생각입니다.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농업 입국이라든지 식량 증산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합성 생명공학쪽 세포 공장 같은 신개념의 바이오 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먹거리가 되고 있고, 또 관련 분야의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과 거리를 좁혀갈 수 있게 우리의 첨단 과학 연구들이 어디까지 와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개별 보도와 기획 보도, 그리고 특집 다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문제는 오늘도 보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지자체들은 난방비 보전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대전시는 난방비 지원 정책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오늘도 관련 뉴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1월에 한파가 더 강했기 때문에 2월에 난방비 문제가 더 심할텐데 특히 공공 물가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고, 올해 냉방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전기요금 부담도 서민들 삶에 직격탄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느 해보다 암울한 시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만 서민 경제에 더 관심을 갖고 계속 발굴해서 문제점에 대한 보도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해제는 들여다봐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통제했기 때문에 구성원 사이에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중 규제가 있었다는 구성원들의 불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수한 인재를 픽업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 기재부 예산 체제에서 일정 액수 이상은 쓸 수 없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고 더 깊이 있게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남유식 앵커를 2편 제작하고 박선진 기자 2편을 제작했는데 3월에 인턴사원이 재가동되면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니 정규 뉴스에서는 다룰 수 없지만 디지털 매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자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기획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파쉼터는 2차 보도를 준비해서 오늘 또 나갑니다. 부실하게 운영됐던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입장을 통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파쉼터로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는데 난방비 폭탄하고도 연계되어 있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만의 제한 때문에 제대로 운영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취재해서 오늘도 보도를 이어갈 생각이고요.

여름이 되면 냉방 쉼터도 비슷한 문제인데 이런 보편적 복지의 수단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과 운영상의 미비점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보도를 올해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통대전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에서 3분의 1정도 구매액이 줄었는데 현금 사용액도 있기 때문에 온통대전만이 오롯이 전통시장 매출감소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면이 있습니다. 1월말이 지나면 전통시장에 대한 통계가 들어올 텐데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볼 생각이고 지역 화폐에 대한 예산안이 내려오면 대전시가 다음 달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아직 지역 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기 때문에 분석에 따라서는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많지만,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는데 실제 지역화폐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돌려준다는 얘기는 저도 잘 몰랐는데 명절 고향 상품 판매전 때 관련기사가 언뜻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들의 매출증대가 이런 정책 홍보와 직결

된다면 해수부의 정책도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액을 늘려서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정책일 텐데 홍보 부족으로 효과를 못 본 것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관련 보도들은 저희가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기치로 걸고 올해도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이라든지 대안까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만들겠습니다. 난방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까지도 보도를 준비 하겠습니다.

대전MBC 유튜브와 뉴스 유튜브가 따로 있습니다. 뉴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본사의 iMBC와 통합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역 뉴스 소재들이 공간 제약 없이 본사를 통해서 소구력 있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자체를 유튜브 업로드 하는 수준이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에 맞는 뉴스의 재가공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근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들의 이슈들에 대해 새해에만 그치지 않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지역 현안도 있을 것인데 중간중간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고요.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개별적인 질의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지역에 함몰되지 않고 전국적인 여론을 끌어내야 세종의사당 같은 문제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후속보도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울렛은 6월 정도에 재개장 예정인데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 했습니다만 실제 개장을 하더라도 개장 전까지 보상 문제라든지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장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기획 보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방호 지침 보도는 품을 들인 기사인데 실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저희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문제, 인구소멸 문제, 지역소멸 문제들은 지역 언론이라면 올해뿐만 아니라 화두로 바꿔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대전, 세종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 전국의 농촌들이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지역네트워크로 공동 취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문제라든지 개별 사례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같이 취재하고 그것을 뉴스데스크 원방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더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재들을 올해 활발히 진행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편성국장
서천화력발전소와 고향사랑기부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추남>코너에서 가능하면 지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방향으로 계획중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앞으로도 잘 챙겨보겠고요. 일단 <이추남>이 아직 포지셔닝이나 콘셉트가 명확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구석구석에 있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른 김장하>는 지역의 인물을 발굴해서 접근 시각이나 화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올해 지역의 역사나 인물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다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다음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지 50년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이기도 하고 저희도 올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성국에서는 일단 과학과 대덕 연구단지 연구 성과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청자분들한테 소구력을 갖기 위해서 시리즈물이나 기획물 그리고 강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방통위나 방문진 그리고 지자체 제작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차곡차곡 카테고리를 나눠서 준비 중인데 나중에 확정이 되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이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난달 16개 지역사 편성책임자 회의에서 올해는 지역소멸에 대응해서 16개 계열사가 '지역소멸 대응 캠페인'을 약 1분 반에서 2분짜리로 제작해서 전국에 동시 송출하는 걸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방향이나 제목 혹은 기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대전MBC 소년소녀합창단은 제가 입사한 95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대전MBC 어린이합창단이 운영된 걸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요즘 방송사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MBC내에서도 안동MBC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업이 아니고 공익성 차원에서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사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데 소외계층을 위해서 공연도 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방송사에 소속된 합창단으로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순수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과거에 노을 같은 주옥같은 명곡을 남긴 MBC 전국창작동요제가 있었고 아쉽게도 폐지가 된 지 오래됐는데 그걸 한번 대전MBC가 키를 잡고 이 소년소녀합창단을 기회로 다시한번 부활시켜 보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 중에 있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취지를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튜브는 보도국장께서 설명한 대로 대전MBC 유튜브 채널과 뉴스 채널, 이원화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뉴스 채널에 비해서 대전MBC 채널은 돈을 들여서 외주 업체를 통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콘텐츠가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회 수 순서로 뜨다 보니까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가 조회 수가 꽤 높습니다. 수 십만회가 되다 보니까 10수년 전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 <웃으면 복이와요>는 리턴즈라고 저희가 2013년도에 옛날 추억의 인물들을 소환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최양락씨가 나왔고 인기가 있다 보니 조회수가 높아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나오는 명품 다큐들을 앞부분에 그때그때 배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덕특구 50년은 보도국장, 편성국장이 각각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기획실 차원에서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뉴스 기획 보도, 콘텐츠 그리고 공익캠페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과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대전시가 대덕 50주년이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한 줄 알았더니 옥외광고 정도 수준의 예산 외에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타깝고 좋은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들은 얼개가 잡히는 3~4월 정도에 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지요?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주장인데요. 일본 정부에서 이민청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외국인을 들여오는 걸 자연스럽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어떤 갈등이나 거부감 또는 차별 없이 소프트하게 랜딩시키는게 아마 성공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좋은 사례가 있으면 특집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은표 간사
마지막으로 시청자 위원을 대표에서 시청자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 주시고 이어서 사장님께서 마무리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1월은 올해를 새롭게 계획하는 달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파이팅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대전MBC도 그런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해수부의 온누리 상품권 30% 환급은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언론사가 잘 챙기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

을까 싶습니다.

뉴미디어 SNS 활용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취임사에서 대전MBC는 지상파 방송사니까 당연히 지상파 콘텐츠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병진 정책이었어요. 제가 1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본사 같은 경우에는 재원과 인력이 있어서 뉴미디어를 담당하는 크리에이티브 센터가 있고 거기는 본사 직원이 아닌 크리에이티브 센터에 소속된 인력을 따로 뽑습니다. 그 직원들은 온전히 그것만 합니다. 물론 PD, 기자들이 자기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 파생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회사에서 돈을 안 줘도 개인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대세는 아니고요. 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대전MBC는 안타깝게도 그런 여력이 있지 않다는 거 하고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지상파 콘텐츠가 조금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지상파 콘텐츠보다는 그냥 유튜브에 올리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그렇게 하면 지상파를 보는 지역의 시청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편성국장과 상의를 하면서 2023년은 지상파 콘텐츠에 집중하고 우리 지역의 주 시청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당분간 뉴미디어는 포기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건 지역 지상파 방송사로서 주어진 책무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었거든요.

저도 뉴미디어나 SNS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부터 다시 바르게 잡고 나서 추진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도 같은 경우에 서울 뉴스 채널에 끼워 주면 우리 지역 뉴스를 더 잘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편성이라든가 제작PD 쪽에서 만드는 콘텐츠들도 그런 방향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본사에 뉴스 아닌 다른 콘텐츠들의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콘텐츠를 어디에 끼워 넣어야 될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지역 인재 문제, 그 다음에 구인난 구직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분들 만나면 열에 아홉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젊은 사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취업을 못하고 미혼인데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냐... 할 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나 건설현장 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했더니 부모를 공양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은 거의 0.1%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도 같이 짚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인데 수도권보다도 10% 임금을 더 줬어요. 근데 판교로 가버렸어요. 10% 덜 받고라도.. 저는 이런 문제들이 한두 차례 토론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적인 어젠다로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한국전쟁에서 젊은 미군들이 브레인워싱 세뇌공작을 당해서 전부 자유 진영의 가치를 부정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때 미국 정부와 학계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군인들을 어떻게 교육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요. 어쩌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관련해서도 2세를 낳고 번식하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생물학적 본성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거슬러야만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해도 솔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대전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고민해 보시죠.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은 환경이 안 좋아서 출산율이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가도 그렇대요. 아마 이 뼈 속에 어떤 치열한 경쟁이나 강박 관념 그리고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어려운 문제라서 이게 일단은 던지는 수준이어야지 솔루션을 잡기에는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월이라 콘텐츠들이 조금 뜸하고 MBC 본사는 사장 등 경영진이 교체되는 시기라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본사 차원에서도 신년 기획이 별로 특별한 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을 던져준 1월의 시청자 위원회였던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시청자입니다. 그 목표를 잃지 않고 대전MBC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이상으로 1월 시청자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